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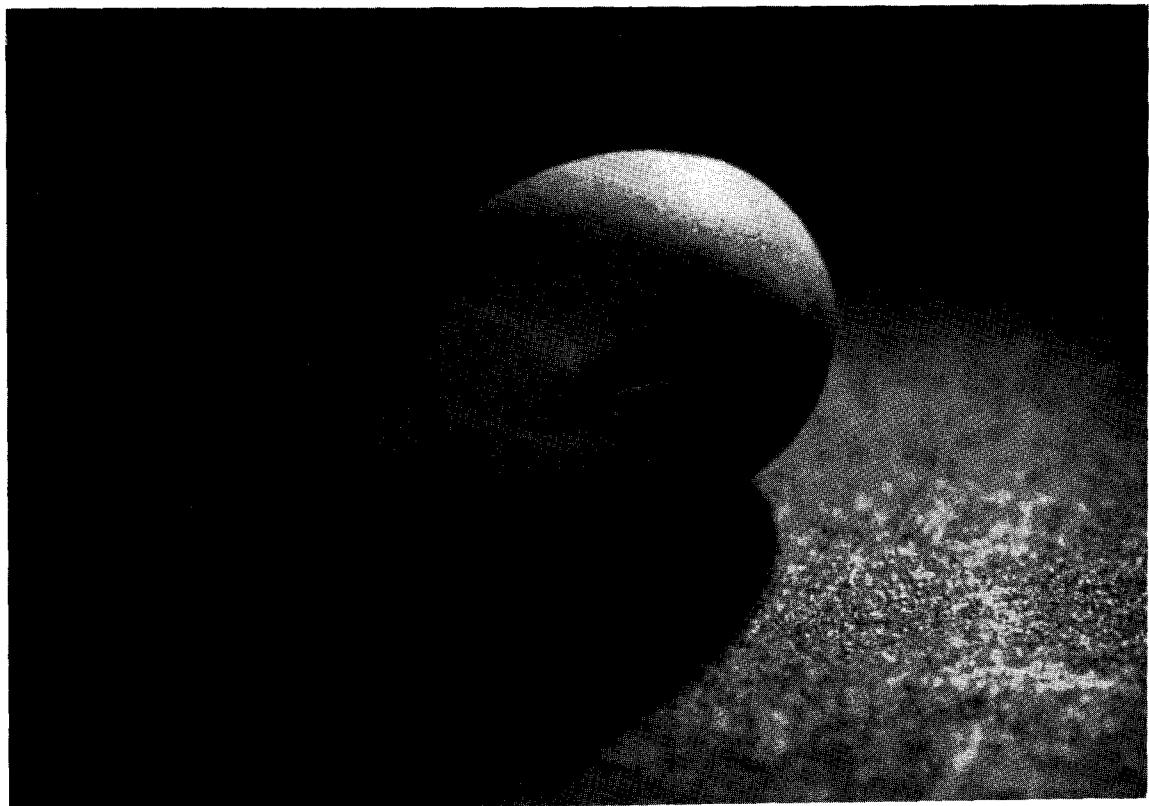
미국을 중심으로 한 콩의需給

조세영 / 미국대우협회
마케팅 실장

미국

세계 生産量 65% 차지

- 국내 콩수요량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콩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들여온다
미국의 콩수급 여파는 바로 우리나라까지 직결되는데…



서(序)

한국을 비롯한 동양권에서는 콩을 조리하거나 혹은 단순 가공 과정을 거쳐 형질을 변형시킨 식품의 형태로 소비하는데 친숙해져 있다. 또 전통적으로 우리의 주요 양식의 하나로 써 굳이 분류를 하자면 쌀, 보리 다음쯤 되는 곡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콩을 직접 식용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콩에 풍부한 기름과 단백질을 화학적 가공을 거쳐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여기에서는 콩은 기름을 짜서 기름은 식용류로, 남은 콩껍묵은 가축사료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용하는 유지작물로 분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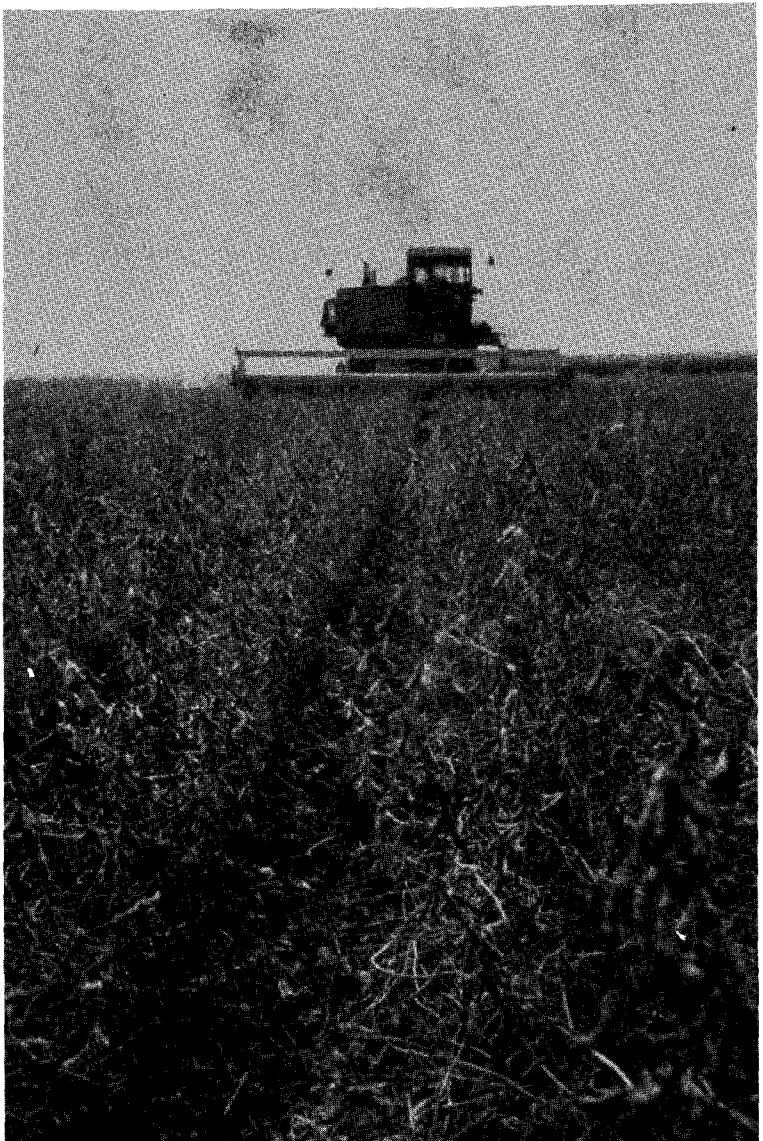
이렇게 콩이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용형태나 분류가 동서양간에 다른 것은 콩의 이용 역사가 길고 깊음과, 콩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필요성 충족의 방법의 차이에 있을뿐, 양질의 단백질과 기름이 풍부하게 포함된 콩의 가치를 인식하고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데에는 조그만큼의 차이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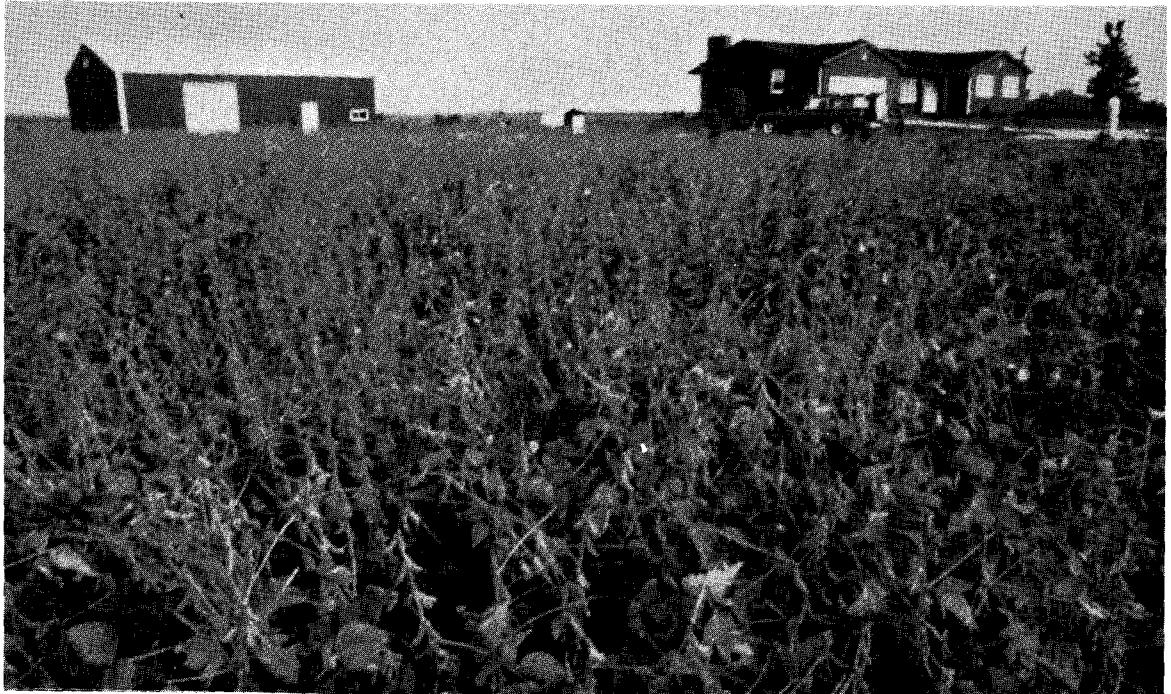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콩의 소비량이 늘고 있고 1인당 GNP가 높은 나라일수록 향상된 식생활을 반영하여 1인당 콩소비도 높다는 사실은 콩의 가치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다음에 언급할 미국의 콩 수요·공급과 관련하여 미국의 콩 생산이 지속적으로 크게 확산되어온 원동력이기도 한 것이다.

미국의 콩 생산 확대 과정

1925년만해도 10만톤 남짓하던 미국의 콩생산은 그후





점차 늘어가기는 하였으나 콩의 이용이나 가공기술이 보잘 것 없었던 때였으므로 동일한 농경지에 옥수수등 어느 특정작물만을 연작할때 오는 병충해를 예방하고 농경지를 비옥하게 하기위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농촌인력이 대거 참전하게되자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하는 면화대신, 식용류와 가축사료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결과 종전되던 1945년에는 콩의 생산량이 525만톤으로 늘어났고 1925년을 기준으로 할때

불과 20년동안 50배 이상이나 증산된 것이다.

전후 복구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 경제가 급속한 발전을 계속하고 콩의 가공, 이용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콩의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따라 미국의 콩생산도 계속확대되어 1979년에는 전세계 생산량의 65%에 상당하는 6,170만톤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1945년을 기준으로 하면 34년동안 11.8배나 늘어난 수준이 된다.

미국에서 이처럼 콩의 생산이 짧은 시간에 급격히 늘어난 것은 빠른속도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 콩재배면적의 확대와 함께 영농기술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투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제로 1945년대비 11.8배나 늘어난 1979년의 콩생산량은 불과 5.5배 남짓 늘어난 경작면적에서 얻어진 것이다.

콩증산을 가능케 했던 또 하나의 요소는 영농기술의 발달에 따른 단당 수확량의 증가에서 찾아질 수 있다.

즉 1945년 에이커당 18부셸 (36.74 부셸=1Ton)에 불과하였던 단당 수확량은 1979년에는 32.1 부셸로 향상되었기에 대폭적인 증산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계속늘어오던 미국의 콩생산

은 1979년을 정점으로 하여 1980년대 들어와 정체내지는 약간씩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80년대들어 지난 60~70년대보다 둔화된 세계경제가 높은 미국달러가치 및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보복조치인 대 소련 곡물금수 조치와 맞물려 콩의 수요를 위축시켰던 까닭이다.

이에 덧붙여 수요증가에 힘입어 여타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은 브라질, 아르헨티나등지에서 콩의 생산을 증가시켰고, 그 동안 미국의 지속적인 콩의 증산으로 미국내 콩의 재고가 1986년에는 약 1,460만톤이 되기도 하는등 공급과잉을 빚게 되었다.

이처럼 수요확대를 능가한 공급의 증가로 미국의 콩 생산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되자 미국 정부는 콩 감산을 통한 공급조절을 도모하게 되었고 그 결과 콩의 생산은 정체 내지는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도 미국의 콩 수급 예상

농작물 생산에서 농경지, 영농자금·기술·장비 및 노동력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투입요소는 자연조건 즉 기후이다.

미국 농무부(USDA)는 지난 1월 31일자 콩 작황보고서를 통해 1988년도 콩 생산량을 4,189만톤으로 발표하였다.

1988 / 89년도 세계 전체 예상 생산량 9,502만톤의 44%에 상당하는 미국의 1988년 콩 생산량은 1987년의 생산량 5,234만톤보다 20%나 감소된 수준이다.

이와같은 대폭적인 감산은 지난해 봄부터 여름까지 미국의 주요 곡창지대에 계속된 가뭄의 피해로 인한 것이다.

지난해 미국의 콩 생산량을 4,189만톤으로 잡정 집계한 미국 농무부는 822만톤의 1988년 9월 1일자 기초재고를 포함하여 1988 / 89년도(1988년 9월 1일 ~ 1989년 8월 31일) 미국의 콩 공급량을 5,011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콩소비는 착유가 공 2,831만톤, 수출 1,538만톤을 포함하여 4,630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연도말 이월 재고량은 381만톤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수출예상물량 1,538만톤은 같은기간중 전세계 수출예상물량 2,589만톤의 약 60%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대폭적인 감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콩 교역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1988 / 89년도 말(1989년 8월 31일) 이월 재고량 381만톤은 같은 기간동안의 예상되는 사용량 4,630만톤대비 8.2%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현재의 소비 추세로 볼때 약 한달 남짓 사용할 물량인 것이다.

미국 농무부가 지난 1월 31일 발표한 미국의 콩 수요 공급 예측 및 지난 4년 동안의 수급 상황은 다음과 같다.

콩수급 현황

단위: 100만톤

	1984	1985	1986	1987	1988
공급					
기초재고	4.79	8.60	14.59	11.87	8.22
생산	50.65	57.13	52.80	52.34	41.89
총공급	55.44	65.73	67.39	64.21	50.11
소비비					
국내가공	28.03	28.66	32.09	31.95	28.31
수출	16.27	20.14	20.60	21.83	15.38
종자/사료	1.66	1.63	1.55	1.52	1.63
기타	0.87	0.71	1.28	0.68	0.98
총소비	46.84	51.14	55.52	55.99	46.30
기말이월재고	8.60	14.59	11.87	8.22	3.81
사용량대비재고비율	18.4	28.5	21.4	14.7	8.2